

##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현황 및 기타 (2020 년 5 월 15 일 기준)

COVID-19 관련하여, 총 4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무단 배포, 무단 전제 및 무단 복사 안금지되고, 출처 표기 안금지(?) 되며, 모두 허용됩니다. 저가 있는 자리에서 멕시코 한인 사회를 위하여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별도 연락을 통하여 게재, 복사 관련 허락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현 서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 월 13 일 수요일 오후부터 5 월 15 일 금요일 오전까지 변동 사항 중점하였습니다.

### I. COVID-19 현황 (5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기준)

- 사망자: 4,477명

- 확진자: 42,595명

최근 14일 이내 증상 발현자: 10,057명

최근 14일 이내 발현자 토대하였을 때, 상위 3개 주

❖ 멕시코 시티: 2,448 명

❖ 멕시코 주: 1,372명

❖ 타바스코: 567 명

- 의심 환자: 26,746명

- 음성 (이상 없음) 환자: 86,591명

- 조사 인원: 155,932명

❖ 13일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관은 멕시코로 수송된 COVID-19 관련 항공을 통한 열 번째 의료 장비 기부에 대하여 “우리 중국이 COVID-19 재난 상황에 있을 때, 도와 주었던 첫 번째 국가들 중 하나인 멕시코를 결코 잊지 않겠다 (jamás olvidaremos)” 이야기 하였고, 멕시코 재무부 장관 Marcelo Ebrad는 “아쭈 고마워!” 하였습니다 (병주고 약

주고,북치고 장구치고, 얼썬!...Give and Take).

- ❖ 14일 목요일 보건부 차관 Hugo Lopez Gatell은 13일 수요일 경제 재개 발표와 함께, 길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집어 붙어 있어라. 아직 안끝났단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통령 또한, “갈매기 한 마리가 여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una golondrina no hace verano)”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 ❖ COVID-19 영향 사망자를 매장할 장소가 충분히 준비되어있으며, 우리 행정부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AMLO는 15일 금요일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조금 안심되네요...)

### 멕시코 시티

- 한국 강남구청과 비견되는 폴랑코 (Polanco) 소재 미겔 이달고 구청은 관할 주요 도로 및 길목에 대한 소독을 드론 (Dron)을 통하여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름 대략 1m 30 cm로서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해당 드론은 공중에서 16 리터 상당 소독제 보유하고 3시간 동안 10 헥타르 정도 지역에 살포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길을 지나시다, 신기하다고 짱돌을 던지거나, 올라타지 마십시오.

호기심에 드론에 올라탔다가 드론과 함께 공중 부양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두 개 중 한개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 ① 공중에서 드론이 뺏뻘리가 다 되서, 자유 낙하할 때까지 구경하며 기다리시거나..
- ② 드론 정 중앙 오른쪽 끝을 보시면, 녹색 단추가 보입니다. 해당 단추를 누르시면, 동영상 이 하나 나오는데, 이를 보고 계시다가 드론과 자유 낙하 (동영상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

- 14일 목요일, 멕시코 시티 Alvaro Obregon 구청 관할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5월 23일 축제를 통하여 COVID-19 모두 감염되고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하자”는 뉴스에 대하여, 동일 멕시코 시장 Claudia Sheinbaum은 “가짜 뉴스 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고....

## II. 대통령 연설

- 14일 목요일 AMLO는 이번 주말 “신경제 (nueva economía)”라는 대통령 생각이 담긴 문서 하나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살짝 맛배기로 다음과 같이 “멕시코 방향 기준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국내 총생산 이던, 성장이던 그런건 모르겠고, 국민 번영 및 행복에만 집중하였다”

스페인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원문을...” "Este fin de semana voy a publicar un texto sobre la 'nueva economía' (...), lo voy a fundar en cómo hay que cambiar los parámetros y no estar pensando en el Producto Interno Bruto (PIB) ni en el crecimiento, sino que hay que estar pensando en el bienestar y en la felicidad del pueblo"

- 15일 금요일 AMLO는 일부 단체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COVID-19 기간 중 가정 폭력 중 대부분이 여성을 향한 폭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정 폭력 관련 비상 전화 번호 911 분석하여 보면, 90% 가짜라고, 현혹되지 말라” 고 언급.
- 지난 주 기사에서 미국 주요 일간지 The New York Times 에 의한 “멕시코 시티 경우, 정부 보고보다 3 배 이상 많은 확진자가 있다”에 기사에 대하여 대통령이 부정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시다만, 오늘 15일 다시 한번, AMLO는 미국 주요 일간지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o, Financial Times 및 국내 일간지 El Pais 가 가짜 뉴스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하였습니다.

멕시코 신문사 El Universal 경우에도, 오늘 15일 전염성 질환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 발표보다 25 배 정도 확진자가 있을 것 같다는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멕시코 확진자는 881,000 명 ~ 1,270,000 명일 것이라고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전염 시킬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 III. 경제

- 14 일 목요일 AMLO 는 대통령 입후보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남부 마야 열차 (Tren Maya) 순조로운 공사 시작을 “추카 추카” 해주기 위한 해당 지역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 유카탄, 키타나루) 순시를 보건부에서 특별히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방문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멕시코 연방 보건부 차원에서 건설은 COVID-19 연관 핵심 사업 영역은 아니라고 한 상태에서 (물론, 다음 주 월요일 18 일부터 광업, 자동차 및 건설은 해당 영역으로 편입), 대통령 공약 관련 건설 (마야 열차, Tabasco 지역 정유 공장 신설, 멕시코 신공항)은 예외라고 강행하고 (건축 재정 관련 예산 절감에서도 예외), 멕시코 인권 위원회 (CNDH)에서도 건설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 중지를 권고하였습지만... 그냥 쭉~욱 무리없이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AMLO 행정부 재임 기간 중, 현재까지 최소 30 명 상당 인권 관련 운동가 암살되었으며, 4 명은 COVID-19 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발표)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국영 공사 정유 시설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 임대비 관련: 지난 4 월 13 일 서류에서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page=2&document\\_srl=4227](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page=2&document_srl=4227)) 사업장 임대비를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느냐? 질의에 대하여 문의들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법적으로 불분명해서, 확실하게 임대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하기에는 법적 가능하다고 의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 정부 바하 캘리포니아 경우, 주택 및 사업장 임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별도 발표).

혹시라도, 사업장 임대비를 법적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민상사 책임을 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적 상황과는 별도, 현재 대부분 임대주는 경제가 안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COVID-19 기간 중 임대비를 할인하여 주고 있으니 협상하여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어차피 밀려야 본전인데...).

편의점 OXXO 입점되어있는 건물 임대주는 최근 해당 편의점이 독단적으로 임대비를 깎으려한다고 신고 한 상황입니다.

#### IV. 사회

- 13 일 수요일 오후, 부패 척결 관련 멕시코 비영리 민간 단체 (MCCD)에 의하여 제기된 현 정부 전력 공사 (CFE) 아들 소유 법인 Cyber Robotics Solutions 연관 사회 보험청 (IMSS)에의 COVID-19 연관 의료 장비 부패 혐의에 대하여 사회 보험청 (IMSS)는 아래에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재조사하여보니, 입찰 공고 명시 기술적 사항이 미비하여 모든 장비를 반품하였다”

현 AMLO 정부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공사 (CFE) 사장 Barlett 의 아들 Leon Manuel Bartlett Alvarez 는 사회 보험청 의료 장비 입찰 공고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 (MX\$ 28,600)을 제시한 업체보다 1,500% 비싼 MX\$ 463,000 가격을 제시하고 입찰 통과되었습니다 (총 금액 MX\$ 31,000,000).

El Universal 신문사는 전력 공사 사장이 ”고위 공직자 재산 목록”에 신고하지 않는 23 개 주택 및 12 개 회사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아들놈이 관련된 육군,

해군, 사회 보험청등에 관련된 정부 입찰을 통하여 MX\$ 160,000,000 초과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AMLO 대통령 임기 4 년인데...아직 많이 남았는데...).

AMLO 임명 감사원장 (SFP)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스....ㅁ....니다(과연....?).

- 14 일 AMLO 는 군인들에 의한 멕시코 공공 치안 개입 관련 많은 비판에 대하여, “물론 군인 개입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6 개월전 연방 헌법 개정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위급 상황이고 내가 잘 관리하겠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육군 병장 출신 (?)으로, 군인 및 경찰 대응 수칙에서 전자는 살인을 해서라도 국가를 방어하고, 후자는 최소 피해를 주는 방향에서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는 설립 목적 자체가 틀리고, 군인 치안 개입이 대략 AMLO 대통령 임기 기간과 교묘하게 맞물리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1970 년 중반 발생 로센도 라디아 파첸코 사건 (군인에 의한 멕시코 정치 치안 개입)으로 대표되는 군인에 의한 인권 유린 역사가 있는 멕시코와 한국 포함, 군인이 정치 및 치안에 개입되었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심히 불안합니다.

(1974 년 8 월 25 일 발생 Pacheco 인권 유린 내용은 필자가 2018 년 후반 당시 El Coreano 신문에 발표하였으며, 2009 년 11 월 멕시코 정부에 의한 배상 판결 및 2011 년 연방 헌법 개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4 일 AMLO 연설을 요약 하자면, “야..이 오빠 못 믿어?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 손 만 잡고 잘께...”

작성: 김영곤

- YG consulting 대표, 변호사, 공인 회계사
- 멕시코 연방 사법부 (대법원 포함) 인증 회계 전문 감정사
- 멕시코 연방 사법부 (대법원 포함) 공식 한국어 (한서, 서한) 통번역사